

LG화학, 신입사원 300명 채용

정보전자소재 강화 위해 이공계 90% ... SK도 1100명 모집

삼성그룹이 하반기에 사상 최대인 5000명의 신입사원을 뽑고 LG그룹이 2400명, SK그룹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각각 6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삼성그룹은 2005년 하반기에 27개 계열사가 총 5000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라고 9월1일 발표했다.

삼성그룹의 2005년 연간 채용규모는 상반기 3300명을 합해 총 8300명으로 2004년 8000명 보다 300명 정도 많은 사상 최대규모이다.

계열사별로는 삼성전자 2500명, 삼성SDS 450명, 삼성중공업 350명, 삼성SDI 310명, 삼성테크윈 200명, 삼성생명 170명, 삼성화재 100명 등이며 원서 접수기간은 9월부터 12일까지 8일간이다.

삼성은 전체 인원의 80%에 달하는 3986명을 이공계 출신으로 뽑을 예정이며 우수 여성인재 활용 확대를 위해 여성인력 비중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2005년 채용부터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 응시하면 삼성직무적성검사(Samsung Aptitude Test)와 면접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해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은 전계열사가 공통일정으로 입사지원서 접수와 직무적성검사(25일)를 실시할 예정이나 면접은 계열사별로 진행되며 희망자들은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외국어능력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서류심사 없이 직무적성검사에 응시할 수 있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삼성 채용 홈페이지(www.dearsamsung.c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삼성은 1995년 열린 채용 실시로 학력 제한을 철폐한데 이어 2004년부터 일부 전문기술직군을 제외하고 전공 제한을 폐지해 지원자격을 대폭 개방했으며, 사업장이 전국에 골고루 있어 지방학생들에게도 입사 기회가 많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응시자 졸업연도는 채용 직전 학기와 해당학기 졸업예정자로 국한하는 방침을 고수해 8월 졸업자와 2006년 2월 졸업 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다.

LG그룹은 대졸 신입사원을 상반기에 LG전자 2000명 등 3800명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에 2400명을 선발해 2005년 총 6200명을 계획대로 채용할 예정이다.

계열사별 하반기 채용인원은 LG전자 1000명, LG필립스LCD 520명, LG화학 300명, LG CNS 200명, LG이노텍 80명, 파워콤 80명, LG생명과학 60명, LG상사 40명 등이다.

LG전자는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홈네트워크 분야 연구개발 인재 확보에 주력키로 하고 대졸 신규채용 인력의 90%를 이공계로 선발할 방침이다.

LG화학도 편광판 등 정보전자소재 강화를 위해 90%를 이공계로 충원할 계획이다.

SK그룹은 2005년 하반기에 경력사원 500명, 신입사원 600명 등 1100명의 대졸사원을 채용한다.

SK그룹은 상반기에 600명을 신규 채용해 2005년 채용규모가 사상최대인 1700명에 달할 전망이다.

<화학저널 2005/09/05>